



1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기념식
 2 박경리문학공원
 3 박경리문학상을 수상한 이스마일 카다레(오른쪽에서 두 번째)
 4 임윤지당열선양관

근원(根源)의 땅 원주 ‘문학 창의도시’ 날개를 달다

원주는 지난 10월 30일 ‘2019년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문학 도시 가입을 공식 승인받았다. 토지와 박경리 선생을 비롯한 많은 문학적 자산이 높은 점수를 얻었다.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는 유엔(UN)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에 부합하는 도시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2004년 시작된 유네스코의 글로벌 플랫폼이다. 공예와 민속, 디자인, 영화, 미식, 문학, 미디어예술, 음악 등 총 7개 분야에 전 세계 72개국 180개 도시가 가입돼 있다.

이 중 문학 분야는 28개 회원 도시들이 전 세계 도시들이 제출한 신청서를 평가하고, 유네스코 전문가, 비정부단체, 학계, 여타 독립 전문가들의 자문회의 결과를 합산해 유네스코본부가 가입을 최종 결정한다.

원주는 고려, 조선시대 여성문학, 기행문학, 은둔문학의 거점이다. 조선 후기 여성 성리학자였던 임윤지당은 ‘윤지당유고(允摯堂遺稿)’를 통해 성리학과 시문을

남겼고, 김금원은 여성으로서 남장하고 금강산을 다녀온 후 여행기록서 ‘호동서략기(湖東西略記)’를 남기기도 했다. 또 태종의 스승이었던 원천석과 손곡 이달은 은둔문학의 대가이기도 하다.

근·현대에 들어서 원주는 박경리, 지학순, 장일순, 김지하 등을 대표로 하는 생명문학으로 이어져 문학도시, 인문도시로서의 입지를 다졌다. 시에서는 문화자산을 기리기 위해 임윤지당열선양관을 건립했고 생명협동조합기념관도 공사 중이다. 임윤지당기념사업회와 무위당기념사업회의 전시, 전국 백일장 등의 활동도 꾸준히 이어나가고 있다.

특히, 대하소설 ‘토지’가 완간된 원주는 박경리 선생의 옛집을 기점으로 박경리문학공원, 토지문화관 등이 창작의 산실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1999년에 개관한 토지문화관은 현재까지 30여개 국가의 해외작가 120명, 한국 작가 1천명이 다녀갔다. 또 매년 ‘박경리문학제’를 개최해 원주 문학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

다. 문학제 기간에 열리는 ‘박경리문학상’은 2011년 제정돼 미국, 러시아, 이스라엘, 케냐 등 세계적인 작가들의 문학적 업적을 성취하고 있다. 올해 열린 제9회 박경리문학상에서는 프랑스 작가인 이스마일 카다레 씨가 수상했다. 또 2004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민 주도로 시작된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과 사회적 협동조합 패랭이꽃 그림책 버스, 그림책 여행센터 이담 등 원주 문학 발전의

자산이 곳곳에 있다. 한국문인협회 원주시지부, 원주여성문학회, 소설토지사랑회 등 문인 단체들의 활약과 원주시립중앙도서관, 중천철학도서관, 태장도서관 등의 5개 공공도서관과 57개의 작은 도서관은 36만 원주시민의 문학쉼터이기도 하다.

원주시는 전 세계 창의도시들이 모이는 연례회의, 문학 창의도시들의 연례 네트워크회의, 아태지역 창의도시 네트워크 콘퍼런스 등에 참가하면서 박경리문학상에 문학 창의도시 참여, 토지문화재단의 작가 레지던시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분단지역의 특성을 살린 평화 문학 프로그램, 원주 한지와 연계한 문학협동조합 설립, 그림책 스토리텔링센터 추진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 창의도시 국제포럼 개최 아프리카, 아랍국가와의 문학 교류 및 지원 등 해외 부문에서 다양한 사업을 연차별로 진행할 예정이다.

원주시가 거둔 이 같은 결실은 원주만이 가지고 있는 풍부한 문화적 자산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창의성 덕분이다. 이를 바탕으로 원주시는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이루고 지역과 분야의 경계를 넘어 국내외 다양한 도시, 다양한 문화예술과의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는 유네스코 창의도시로 역량을 키워 간다는 계획이다. ❶



원주시,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



박경리

